

## 농림수산식품부

### ▶▶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모두 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지난 7월 3일 경기 연천 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AI는 충남 천안(종오리) 및 전북 익산(중계)에서 시작해서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6,472천마리가 매몰·처분됐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금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 7일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가 총 20건이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전파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2011년 7월 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 23)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월 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 ▶▶ 가축재해보험, 재해사고 예방 및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전적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660농가(돼지 400, 닭·오리 260)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 예방하고,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주계약특약) 보장내용을 점검하여 가입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및 환경에 맞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손해방지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사고 조사 경험 및 축사 전기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방문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약품(소독약, 항생제 등)을 지원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설비 배선의 적정 여부, 감전위험 전기시설 유무, 전기시설 노후화 여부, 전기사용자의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는 보상실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가입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 및 재해발생시 보상받는 금액 등 상품내용(주계약/특약)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위험에 대하여 재설계를 하게 된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발생시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국가식품클러스터, (주)하림 투자유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22일 과천에서 조 배숙 국회의원, 정헌을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박종국 지원센터 이사장, 김홍국 (주)하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및 전북도·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전북도·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단지에 닭고기 등 가공 및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주)하림측은 약 33만㎡ 규모의 신선육과 육가공품 생산시설을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와 전북도·익산시는 하림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력하며,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2015년까지 총 5,535억원(민자 3,285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150여개의 식품기업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R&D수출지향형 국가 식품전문산업단지(23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 4조원에 2만2천명의 일자리 창출(2008. 12 산업연구원 자료)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차 산업과 연계하여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 8월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 점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정부합동 점검·단속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히 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 처리시설 방치 여부, 무단방류, 분뇨야적 등 위반사례 적발시 관계법 등에 따라 시정·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하고, 지난 7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은 5개반으로 구성(1조 3명)되며, 해양투기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농가 등의 처리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직접 진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 기획재정부

### ▶▶ 페루산 닭고기 등 특별긴급관세 부과

페루산 닭고기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8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로써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1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과 승용차, 커피, 자전거, 설탕(원당) 등 1만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포도주, 스웨터(면),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 일부와 TV, 타이어 등 5천1개 품목의 관세가 8월부터 즉시 없어지며 면도기, 항공기 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이내에, 중형 승용차 일부와 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꿀, 콩류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령 페루산 닭고기는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 물량이 연간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국내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직무대리 이근성)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정보를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 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국경검역 조치 내용을 우편으로 직접 알리고 협회·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1588-9060)를 비롯하여 공항만 현장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해당 국가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에 대해서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입국 신고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그 동안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입국 과정에서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를 해왔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 등의 무사항이 축산관계자 등에게 부과됨으로써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사안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게 된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검역 강화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

▶ 동 · 식물 위생기술 R&D 확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동물 및 식물위생 R&D 기능을 통합한 동 · 식물위생연구부를 신설, 그동안 분산되었던 연구역량을 결집,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역 · 방역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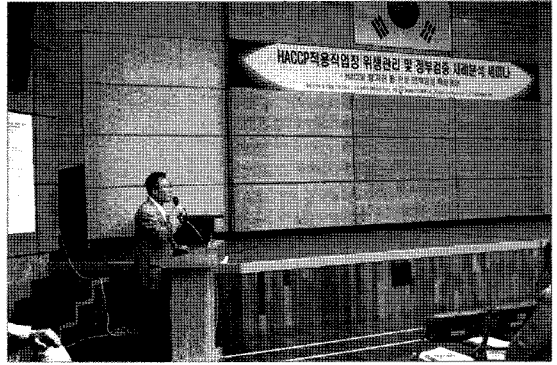
특히 동 · 식물위생연구부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설치를 계기로 동 · 식물 질병관리, 검역 · 검사분야 시험 · 연구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성화학과, 동물약품평가과를 동식물위생연구부로 이관하여 축산식품 안전성관리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표준화 연구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질병방제는 물론 체계적인 축산식품 안전서비스 제공과 우수하고 안전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향후 검역 · 검사본부는 동 · 식물 위생분야 R&D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획 및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제 제안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주기적 성과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 'HACCP 적용작업장 위생관리 및 정부검증 사례분석' 세미나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건국대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과 공동으로 대미 삼계탕 수출희망작업장 등 HACCP 적용작업장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수준 향상과 HACCP 평가관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소속 HACCP 평가관 및 업체 소속 HACCP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HACCP 적용작업장 위생관리 및 정부검증 사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미국 HACCP 전문가인 Mr. Robert A Savage(HACCP consulting group, LLC 회장)를 초청, 미국정부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체계 등에 대한 특별강의가 있었고, 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 황인진 수의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국내 HACCP 적용작업장의 정부검증방법 등 정부차원의 선진위생관리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검역검사본부, 시 · 도 및 축산물HACCP기준원 등 정부소속 HACCP 평가관 및 업체소속 HACCP 관계자 등 전문인력 양성 특별훈련과 대미 삼계탕 수출희망업체에 대한 현장 기술자문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같은 교육을 위해 'HACCP 평가관을 위한 HACCP 적용작업장 정부검증 매뉴얼'(600부)을 개발 보급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도축장 등 업종별 HACCP 특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몽골 수의연구소와 연구협력 MOU 체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동·식물기술개발연구 분야의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몽골 수의연구소(Ganbold 소장)와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몽골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의 소개와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발생 및 역학 상황, 연구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정보를 공유했고, 현지 주요 방송국 등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몽골 수의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방역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와 각종 질병정보 교류 및 병원체 유전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최신 방역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검역검사본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 호우피해지역 긴급 복구활동 전개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 직원 100여명은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지역 등 피해가 많은 지역 시·군을 찾아 수박덩굴 정리작업 등 피해복구 활동은 물론, 작목별 현장컨설팅과 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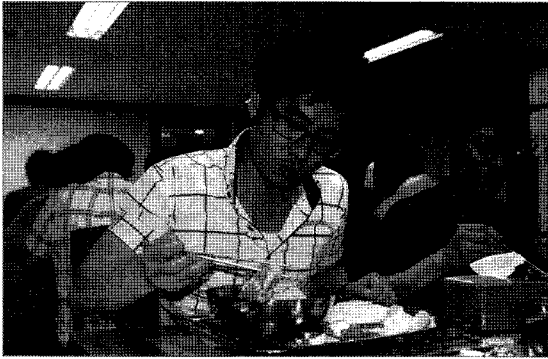
이번 호우로 인해 침수된 농작물이나 매몰된 농경지 등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수박, 토마토덩굴 등의 잔해 등을 수거하고 농로 토사제거 등 부족한 일손을 도와 시름에 빠진 농업인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일손 돕기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상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날, 우리맛닭 먹고 힘내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은 지난 7월 14일 초복을 맞아 구내 식당에서 점심메뉴로 우리맛닭으로 만든 삼계탕을 먹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근육섬유가 가늘고 연해 소화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가 약한 환자나 노인, 어린이에게 좋다.



또한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닭 가슴살의 경우 단백질은 23.1%나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이다. 닭날개의 경우 콜라겐 성분이 많아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원한다면 닭 날개를 먹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닭고기는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전체 지방의 3분의 2 정도가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다른 육류보다 필수지방산이 많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방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방문, 오세익 원장과 환담을 나눈 뒤 중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 장관은 업무보고 후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크탱크인 KREI가 제 몫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서규용 장관은 KREI 직원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 방향과 주요 현

안'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서 장관은 "향후 농정을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농어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며, 농어촌을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농어업분야의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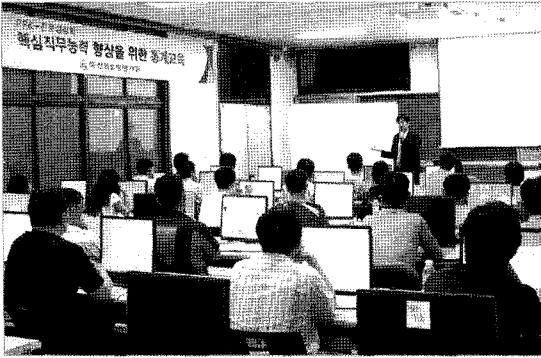
서 장관은 주요 농정 현안인 한·미 FTA, 농협 개혁, 물가안정, 축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강연을 정리하며 앞으로 KREI가 더욱 살아있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연구,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연구,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연구, 물가안정을 위한 선진국 물가체계 연구를 해주길 당부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계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기초과학분야



의 전문성 강화 및 자료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역량강화교육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8주)에 걸쳐 영남권과 호남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등급판정 및 쇠고기이력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통계적 분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부산경남지원, 대구경북지원, 광주전남지원 직원 75명이 자발적으로 본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통계전문가인 전남대학교 김민수 교수와 부산대학교 김병우 교수가 8주에 걸쳐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에게는 24시간의 교육학점시간이 인정된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 2011년도 상반기 축산물HACCP 운용 우수 작업장 시상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7월 4일 기준원 3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상반기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으로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상식을 개최했다.

축산물HACCP운용수준 우수작업장 선발은 축산물HACCP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축산물HACCP작업장의 운용수준을 향상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축산관련 전문기관에 평가 기준 개발과 외부검증을 의뢰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상반기 우수작업장 선발은 최근 2~3년간의 정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소비자단체·축산관련 연구원 등 축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과 외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업종, 7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2010년도 가공분야 정기심사 대상 1,012업체 중 최종 선정된 7개 업체는 (주)장군포크대전대리점(식육포장처리업 부문), 괴산두레식품(합자)(식육가공업 1군 부문), (주)견우푸드(식육가공업 2군 부문), (학)건국유업건국햄(식육가공업 3군 부문), 남양유업(주)천안신공장(유가공업 부문), (주)네오퍼플논산공장(알가공업 부문), 남양유업(주)나주공장(집업업 부문)이다.

▶▶ '신나는 축산물HACCP 탐구생활'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7월 9일 인천 지역 초등학교생과 학부모 43명을 대상으로 축산물HACCP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신나는 축산물HACCP 탐구생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물HACCP으로 축산물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올해 3번째로 마련되었으며, 축산물HACCP지정을 받은 오리육가공공장(다영푸드) 및 농장(진주목장)에서 축산물HACCP시스템으로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견학했을 뿐만 아니라 소시지 체험과 송아지우유주기 등 다양한 낙농체험을 했다.

석희진 원장은 "이번 현장견학으로 축산식품의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HACCP 인증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지역 및 SI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대한영양사협회

▶▶ '2011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전국의 산업체·학교·병원·보건소·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1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양·식생활의 멘토, 영양사' 슬로건 아래 영양사가 국민의 영양·식생활의 멘토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영양·식생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통해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시대 워너(winner)의 조건」,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스피치」를 주제로 실시되는 특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와 전망」, 「21세기 전문직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초강연이 실시됐다.

첫째 날 오후에는 session별로 급식경영, 임상영양, 지역사회 영양서비스 확대, 신규 영양사 직무연수를, 둘째 날 오후에는 학교급식 발전방안, 질병예방·치료와 영양, 창의적 체험활동, 영양교육 및 상담, 최신 식품영양을 주제로 총 35개의 강연이 실시됐다.

또한 영양사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Poster(60여편) / Oral Presentation(10편), 영양사 대상 '영양식생활 교재활용 교육매체 공모전' 전시회가 진행됐다. 